



가슴 뛰는 삶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라!)



채 현 영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홍보지식팀 사원
02-6164-0022

예전에는 마음먹은 일은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었고,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이미 결정된 일이기에 그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생소하거나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은 뒤로 미루다 지나치기 일쑤고 그렇기에 변한 것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기만 하게 된다. 이런 내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는 없을까?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것일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가슴 뛰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가슴 뛰는 일은 의외로 많은 것이다. 어느 누구는 지금 당장 뛰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게 있어 가슴 뛰는 일이란 어떤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그 자체였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동기부여,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미 수십, 수백 가지의 자기계발서가 있지만, 저자의 다른 자기계발서가 미치는 파급력과 책을 읽고 난 후, 마음에 와 닿는 호소력에 이끌려

이번에도 강현구 교수의 책을 집어들게 되었는데 역시 후회없는 선택이었다.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Mom CEO〉 등을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난 강현구 교수는 〈가슴 뛰는 삶〉으로 다시 한번 올바른 ‘비전’을 통해 희망을 기릴 것을 당부하며 독자들의 마음 속 스위치를 켜다.

비전 진도사인 그는 전 세계 40여 도시에 비전스쿨을 세우는 한편, 강의, 책, 비전캠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매일 매 순간 목표와 비전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전파하고 있다.

“나의 사명, 나의 비전”

1996년 1월 1일, 경기도 안성에서, 강현구...(중략)...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10년까지 비전과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놓을 것이며, 그 때까지 전 세계에 100개의 비전스쿨을 설립할 것이다.

이렇듯 저자는 본문에서도 자신의 포부를 밝히

며,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저자는 본인이 체득한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이 책을 썼다. 가슴 뛰는 삶의 사례를 들며 동시에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전달하고 있다.

저자가 경험한 기적 같은 일들이 열정과 애너지, 따뜻하고 선한 힘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 책을 읽음으로써 같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

이 책은 크게 통찰(insight), 작심(determination), 돌파(exceed), 질주(accelerate)라는 4가지 단계를 제시하며, 그에 맞는 일화와 위인들의 에피소드를 들어 독자들 스스로 빛진 인생의 길을 찾아가도록 실마리를 제공한다.

통찰 : 되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내다보라

통찰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공간으로 비전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을 알려준다.

어린 두 딸과 놀러간 놀이공원에서 조악한 회전



목마를 보며 후에 꿈의 놀이공원 디즈니랜드를 만든 만화가인 월트 디즈니(Walt Disney)나 가족들과의 여행에서 형편없는 숙박시설을 보고 미국 전역에 홀리데이 인 호텔을 설립한 케몬스 윌슨(Kemmons Wilson)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사소한 일에서 통찰하고 기회를 붙잡는다면 자신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인, 가장 자기다운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합당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월트 디즈니는 풍부한 만화가적 상상력을 살려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있었고 케몬스 윌슨은 홀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하며 익힌 비즈니스 마인드와 사업가적 기질, 그리고 평소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대한 확신으로 호텔 체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걸 수명적인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 가슴 뛰게 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그것은 20년 이상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견정적이고 수명적인 것이어야 한다.

라이트 형제의 수명적인 키워드는 '비행' 이었고, 토마스 에디슨의 경우는 '전구에 불을 켜는 것', 알프레드 노벨은 '화약' 이다. 이들은 운명을 건 키워드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고, 그 키워드에 관해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인생의 키워드는 취미나 적성, 취향 등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바람직한 것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판단이 단서가 되는 경우이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런 모든 요소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키워드가 정해지면 미래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상상하며 '미래여행'이나 '미래인기'를 작성하며 최종 결과에 집중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작심 : 운명의 루비콘 강을 건너라

작심은 비전을 선언하고 알리는 일이다. 그런데 작심은 생각보다 이루기 어렵다. 작심삼일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삼일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삼일은커녕 하루도 안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만큼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이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는 사명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짧은 글로 만들어 수시로 외우게 하는 방법이나 성공을 노래한 시를 낭송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사명선언문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 것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

통찰 단계에서 찾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적으면 된다. 그리고 시를 낭송하면서 비전을 달성하는데 방해

가 되는 잡음을 없애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후, 당장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도, 그 다음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마련이다.

돌파 : 평범과 비범의 임계점을 훌쩍 넘어서라

마음을 먹었으면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돌파 단계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다.

이 단계는 먼저 자신의 몸에 있는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지식의 임계질량을 돌파하면 된다. 유전자 스위치를 ON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여 잠재된 유전자를 깨운다.

지식의 임계질량을 돌파하려면 자신의 숙명적



인 키워드와 관련된 책을 모아 정독을 하면 된다. 한 가지 분야의 지식만 습득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일정 수준 이상 끌고루 습득하고 있어야 더 크나큰 시너지의 창출에 도움이 된다.

저자는 지식의 임계질량 뿐 아니라 생각의 임계치도 뛰어넘으라고 말한다.

미국 국무성에서 외교관 공개채용 시험이 있었다. 쟁쟁한 박사학위 소지자, 백인 엘리트들, 실무경력을 많이 쌓은 실력자 틈에서 한국계 이민 2세인 정주리도 경쟁을 하게 되었다. 구술시험 날, 시험관이 정주리에게 외교관이 되었을 때 한 시간 국가 이익이 충돌했을 시 어느 쪽의 이익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저는 미국이나 한국,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정의의 편에 설 따름입니다.”

결정적인 한 마디로 불리한 위치에서 그녀는 외교관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지는 않는데 양자택일 질문에서 새로운 답안을 끌어내어 생각의 임계각을 넘긴 것이다.

질주 : 미쳐 내달려라

마지막 단계인 질주는 자신의 비전을 행동으로 옮긴 후 계속 진행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여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일게 해주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

저자는 탁월한 세일즈 방법으로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의 일화를 소개한다. 폴 마이어는 자신의 세일즈 방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LMI(Leadership Management International)를 설립해 약 30개국에 전파하는 등 더 큰 성공을 거둔다. 개인이 가진 비전을 대중적인 브랜드로 영역을 확장시킨 예이다.

또한 브랜드를 가지게 되면, 자기 경영 마일리지 등을 만들어 점검하라고 저자는 충고한다. 월 4회 이상 인터넷 서점을, 1회 이상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다는 식으로 상세한 마일리지 수치를 정하는 것이 좋다.

자신만의 브랜드가 확고해지면 시련에 굴복하지 말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여 마침내 정상에 올라 세상을 향해 외치며 비로소 ‘가슴 뛰는 삶’을 마음 속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실천하기도 어렵다. 허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직 막연한 꿈을 가지고 목표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에 갈증난 이들의 목을 적서주리라 생각하며 이 책을 추천한다.

오늘부터 자신만의 비전을 선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가슴 뛰는 어떤 일이다 가오길 바라며 스테판 M. 폴란의 <2막> 중 한 구절로 서평을 마친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다.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으며,
위기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 스테판 M. 폴란의 <2막> 중에서 -